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여호수아 24:1-19

2018년 신년특새에는 여호수아서를 강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 장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되었다가 마지막 24 장에는 '모세와 같이 여호와와 종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모세는 능력도 있고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그의 몸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홍해바다를 가르도록 하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그토록 가기를 소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평범한 사람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설교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는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도저히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수 24:1)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느긋해 지고 무언가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필요할 때 모였던 장소입니다. 세겜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 세겜에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겜에 모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에,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쯤 점검해 보고 다시금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겜에서 선포된 여호수아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수 24:2-3)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뿌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불순종의 뿌리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순종의 뿌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가지 뿌리에 대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했던 불순종의 뿌리를 따라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이 경고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 자칫하면 죄의 길로 걸어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며 죄가 주는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신앙을 다짐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세겜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고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 24:15)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길 것인지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였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내릴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체험적 신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험적 신앙은,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와 복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것을 권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토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너희는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둘 중에 아무 신이나 선택해서 섬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 가지를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우리의 신앙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 한가지 설명을 덧붙힙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수 24:19)

나눔의 시간

1. 여호수아는 신앙을 점검해 보는 장소인 세겜땅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세겜을 만나 내 신앙을 돌아보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다른 신중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강하게 촉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도전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빠른 행복은 굴욕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목장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여호수아 24:15)을 큰 소리로 읽어보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기도로 목장 예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에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결혼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행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한분만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신앙하는 주체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행음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목장도 잘 참석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하며,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하나님께 빨리 행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복은, 굴욕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선포와 고백은 비단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면 건넜고,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라고 하면 침묵하며 성을 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신앙에 합당한 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 앞에 아멘으로 함께 순종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